



김준원 (SAP - 2반)



■ 학번 : G20212051
■ 학적 : 11학년
■ 가지 : 필리핀
■ 생활관 : 308호
(451-8812-0136)

만방국제 학교 주간 통신문

2025년 2월 2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21주차 [읽지 않음]

2025년 봄 학기 20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9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8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7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6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5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4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3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2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1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0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9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8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7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6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5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4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3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2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1주차 [읽음]

2025년 봄 학기 0주차 [읽음]



GLOBAL POWER NASIUM
만방국제학교

바로가기



생활비 입금 계좌



예금주: LINHAISONG
471-910475-46807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생활비))

2025년 봄 학기 1주차 주간통신문

이번 주 소식

공지사항

교육정보

함께 나누는 이야기

Weekly Life

주간통신문
감상문



이번 주 소식

2025년 봄 학기 1주차 주간통신문입니다.

교육이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다양한 파워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은 교육의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학교의 교육 방향을 이해하시고 한 마음으로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통신문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한국시간)에 발행되며, 인터넷 상황에 따라 발행 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만방골든벨

만방골든벨 활동을 통해 만방 학생 교직, 특강, JG 말씀 등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며 방원들과 협력하여 즐겁게 복습하였습니다. 특히, 말씀 암송을 열심히 노력하고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다양한 배움에 감사하며 반응해 나가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을 응원합니다.



2. JD 숙제왕 시상 & 과제 전시회

학생들의 JD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며 느낀 뿌듯함과 함께, 가족들도 만방의 교육을 경험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력 덕분에 이번에도 40% 이상의 학생이 완벽에 가까운 숙제 완성도를 보이며 '숙제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JD 숙제왕 중 절반은 지난 겨울 JD 만방 합창단 리더십 캠프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JD 가이드북이 학년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배움을 나누기 위해 JD 과제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 시낭송 프로젝트, 가족 하모니 스토리북, 봉사활동, 가족 하브루타 토론 등 만방에서 배운 내용이 가족만의 개성으로 완성되어, 관람하는 학생들의 눈과 마음이 즐겁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JD를 의미 있게 보낸 만큼, 학생들이 봄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D 숙제왕들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왕들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3. JG(2/23):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윤 성 선생님

10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께서 최근 어느 강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적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사회와 정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며, 이러한 사명적 실천을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신앙의 선배들은 이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삶 속에서 진심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공부와 생활이 예배가 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ext >